Since 1969 광주·전남 대표은행
광주은행
행복 금융 실현한다~

광전매일신문

유디철강(주) 철근공장 기계가공
철근 · 철강재 도 · 소매
유디기업(주) 장애인 편의시설 설계 및 시공
BF인증(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설계
대표이사 신 현 종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8번로 14-9(연산동 1280)
TEL : 062-942-7577 FAX : 062-942-7576
MOBILE : 010-2645-5325 E-MAIL : ud7577@naver.com

대표전화 062-525-9775 gjnews.kr FAX : 062-528-4566 2025년 6월 25일 수요일

바닥이 보인 한 레미콘 공장 모래 야적장 전경 사진=광주전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 제공

李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검토… '100일 관례' 깰까

文·尹도 100일 회견… 보다 강한 李 소통 의지 반영된 듯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검토 중이다. 역대 대통령들이 취임 100일께 기자회견을 했던 것에 비교하면 이례적인 행보라는 평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4일 뉴시스에 이 대통령 취임 30일 기념 기자회견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역대 대통령들은 관례처럼 취임 100일 즈음 첫 기자회견을 해왔다. 2017년 5월 10일 취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그 해 8월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2년 5월 10일 취임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 해 8월 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했었다.

취임 석 달이 조금 지나 국정 운영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시점에 언론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고 국정에 대한 평가를 듣겠다는 취지다.

이 같은 '100일 관례'를 깨고 취임 30일 회견이 검토되는 것은 대국민·대언론 소통 의지가 강한 이 대통령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틀 뒤인 현충일(6일)과 2주 뒤인 20일 일정을 마친 뒤 예고 없이 전통시장을 방문해 대통령 당선 후에도 민생 현장과 적극적으로 교감하는 행보를 보였으며, 지난 10일과 11일에는 이틀 연속 대통령실 출입기자단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 바 있다.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순방길에서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약식 기자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한 날(4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은 7월 3일이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 일정도 있으니 확정은 아니다. 아직 결정되진 않았다"고 했다. /뉴시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30일까지 피해보상 접수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은 30일까지 자체 피해 보상 접수를 마감한다고 24일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달 17일 광주공장 사고 발생 이틀 만인 19일부터 28일까지 광주 광산구와 주민 피해 접수를 진행했다.

기간 내 접수를 하지 못한 주민을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3일까지 2차 추가 접수를 받았다.

총 22일 동안 피해 접수를 받은 결과 1만3034명, 2만199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금호타이어는 이들을 대상으로 개별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절차, 필요 서류, 기준 등을 안내했다.

피해 보상 접수는 30일까지 온·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다. /이승원 기자

'모래 대란' 직격탄, 광주·전남 아파트·관급공사 현장 '빨간불'

모래수급 부족, 레미콘 업계 생산중단 위기

"골재채취 산지 확대 등 근본적 대책마련 절실"

최근 '모래 대란'으로 인해 광주·전남지역 건설업체들의 아파트 건설현장과 주요 관급공사의 공정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24일 광주전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최근 광주·전남지역 일부 중소레미콘업체들이 공공 공사용 물량을 배정받고도 모래가 부족해 납품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레미콘의 40%를 차지하는 모래·자갈 등 골재 품귀현상으로 웃돈을 주고도 모래를 제때 공급받지 못해 제한 출하를 할 정도로 모래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레미콘업체는 모래 확보를 위해 임원진까지 직접 나서고 있지만 공급은 한정돼 있고 수요가 몰려드는 상황에 수요량의 50%선 밖에 구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여기에 도내 모래 채취 산지가 거의 없다 보니 전북 남원, 고창, 경남 거창 등 장거리 현장에서 모래를 공급받고 있어 레미콘 업체들의 원가 부담이 가중, 레미콘 가격 상승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레미콘업계는 "가뜩이나 레미콘믹서트럭 운반비, 레미콘 원자재 원가상승으로 힘들게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모래 부족 사정이 나아지지 않은 한 레미콘 생산중단과 제한출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파트 건설현장과 주요 관급공사 현장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광주연구개발특구첨단3지구 조성공사, 호남고속철도 2단계 건설공사, 강진~광주간 건설공사 등의 굵직한 관급공사가 공기지연으로 공정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광주·전남 모래 수급 부족 위기는 몇해 전부터 예견된 일이다는 지적도 나온다.

레미콘 주요원자재인 모래·자갈 등 천연 골재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골재채취 관련 환경규제와 인근 주민들 반대 악재까지 더해 지면서 골재생산은 사실상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전남업체 관계자는 "골재채취 인·허가도 어렵지만 골재채취업자가 골재 공급량을 늘리지 않고 가격만 계속 올려 폭리를 취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광주전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은 국토교통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등을 방문해 골재채취 인허가 관련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얻지 못했다.

레미콘업계는 모래 수급 부족으로 인한 레미콘업계 생산 차질과 건설현장 수급 어려움의 근본적 원인은 단순히 자원문제를 넘어 지역경제와 건설산업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관련기관에 지속가능한 골재 공급 시스템 구축에 나서길 주문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생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선 근본적 구조개선과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레미콘 업계 관계자는 "골재 부족 사태는 어려운 골재채취 인허가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인허가 권한은 일선 자치구와 시·군에 있는 있음에도 주민민원과 환경단체 반발 등으로 신규 인·허가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장기적으로 골재 대란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관련규제 개편에 나서고 골재수급대책 용역을 통해 지역 내 수급 대책을 적극 검토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광춘 기자

광주세계양궁대회 성공 개최 예열 시작

제43회 대통령기 양궁대회 24일 광주국제양궁장서 개막

전훈영 등 600여명 참가… 결승전 5·18민주광장서 진행

'2025 광주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예열이 시작됐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제43회 대통령기 양궁대회'가 24일 광주국제양궁장에서 개막, 29일까지 6일간의 열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대회는 결승전이 5·18민주광장에서 펼쳐져 오는 9월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양궁선수권대회의 분위기를 미리 느껴볼 수 있는 프레대회 성격을 띠고 있다.

이날 오후 진행된 개막식에는 고광완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장영술 대한양궁협회 부회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와 선수단, 임원 등 약 600여명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개막식에서는 개회선언, 우승기 반환, 환영사, 대회사, 선수 선서 등 공식행사가 진행됐다. 이번 제43회 대통령기 양궁대회는 대한양궁협회와 광주광역시양궁협회가 주최·주관하며, 광주광역시가 후원한다.

이번 대회에는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승윤 선수(광주 남구청), 구본찬 선수(현대제철), 2024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전훈영 선수(인천시청), 2015 주니어 세계 선수권 금메달리스트 김수린 선수(광주시청) 등 600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해 최고의 기량을 선보일 예정이다.

광주시는 지난 2017년부터 제35회부터 제41회까지 7회에 걸쳐 대통령기 양궁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왔으며, 지난 제42회 대회는 광주국제양궁장 개보수 공사로 인해 경북 예천에서 개최됐다.

광주시와 세계양궁대회 조직위원회는 이번 대회를 통해 광주국제양궁장은 물론 5·18민주광장에서 결승전을 치름으로써 2025 광주현대세계양궁대회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할 계획이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이번 대회가 선수들에게는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장이 되고, 시민들에게는 양궁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도일 기자